

KLPGA 임원 입후보 출마 포부서

출마 포부서

회원번호 22번 이영미입니다

35년이라는 시간동안 국내 정규투어에서 시니어투어까지 출전하여
예선에서 떨어져 돌아오기도 하고 예선을 통과하여 우승의 자리에
서보기도 했습니다.

해외 투어에서는 외국 선수로서의 입장에서 그 나라의 협회가 시합 때
선수를 어떻게 배려하는지 시합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를 적용 및
문제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등 다양한 경험도 하였습니다
또 임원으로 협회의 입장에 서서 회원의 소리를 존중하며 서로 간에
소통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노력 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존중하며 경험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협회가 되는데 중점을 두고 협회 발전에 기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18일

성명 : 이영미 (